

##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김택호<sup>†</sup>

한국청소년상담원

김재환

한양대학병원 신경정신과

본 연구는 역경상황에서 적응을 잘하는 탄력적인 청소년과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 청소년의 차이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의 초·중·고 학생 2235명과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인천 등 19곳의 복지관 이용 청소년 442명 등 총 2677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 위험요인보다 보호요인의 설명변량이 크게 나타났다. 둘째, 부적응 집단보다 적응을 잘하는 탄력성 집단에서 자존감, 효능감, 낙관성, 가족관계의 질, 친구지지, 교사지지, 희망, 삶의 의미 등 모든 보호요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변인과의 상관을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희망, 교사지지, 삶의 의미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희망과 삶의 의미가 부적응 집단과 탄력성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청소년, 탄력성, 희망, 삶의 의미, 위험요인, 보호요인, 학교생활적응

---

김택호는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조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김재환은 한양대학병원 신경정신과 교수임. 본 연구는 김택호(2004)의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 : 김택호, (100-82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한국청소년상담원  
전화 : 011-9784-6332 E-mail : kimtackho@hanmail.net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지대하다. 이러한 높은 관심은 청소년이 장차 나라의 주역이 될 세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지(知), 덕(德), 체(體) 모든 면에서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란다. 특히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빠른 변화에 잘 적응하고, 문제 상황에 창의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어떠한 역경상황도 헤쳐 나갈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청소년의 비행문제가 왜 생कि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비행은 저 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범죄의 성격 또한 대담하고 흉포화 되고 있어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도 한다. 첫째, 청소년 문제는 매우 다양한 영역 즉, 개인, 가정, 학교, 사회 영역과 관련된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Loeber & Farrington, 1998). 둘째, 청소년 문제는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고 서로 연관되어 있어 문제 행동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Thornberry, 1994). 셋째,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문제 행동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었을 때는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Achenbach, 1974; Zigler, Taussing, & Black, 1992). 이러한 설명은 청소년 문제가 그 만큼 복잡하고 다양하여 변화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렇다면 청소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동안 청소년 문제를 부적응의 문제로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부적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즉,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비행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부적응 문제를 야기 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비행문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가정적, 환경적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Dryfoos, 1990; Vuchinich, Bank, & Patterson, 1992; Bischof, Stith, & Wilson, 1992; Garmezy, 1993), 이 위험요인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비행문제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험사건들을 경험하며 이 사건들 중에는 한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경우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를 위험요인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를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를 지니게 된다.

최근 어려운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상의 문제를 보이지 않고 적응을 잘하는 탄력적인 아이들(resilient child)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Garmezy, 1971; Rutter, 1979; Werner & Smith, 1982)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탄력성 연구의 대부분은 탄력적인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특징적 차이를 밝히려는데 초점을 두어왔다(Rutter, 1985; Lösel, Bliesener, & Köferl, 1989; Werner & Smith, 1992; Garmezy, 1993a). 그 결과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충시켜 주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이 있음을 발견하고, 청소년의 적응 및 부적응의 문제는 위험요인(risk factor)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보호요인에 의해서도 이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보호요인에는 IQ, 자존감, 효능감, 낙관성, 창의성, 문제 해결력, 사회적 기술 등과 같은 개인적 속성과 가족관계의 질,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가족적 특성, 그리고 친구, 교사, 전문가, 이웃 주민 등의 사회적 지지와 교회, 보호기관과의 연계와 같은 사회·환경적 특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보호요인들은 대부분 약물중독 가정, 빈곤 가정, 폭력 가정, 이혼 및 결혼 가정 또는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의 자녀 등과 같은 고위험 집단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응을 잘하는 탄력적 집단과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보호요인들의 점수가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지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설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저위험 상황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고위험 상황에서 보다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Masten & Reed, 2002)는 보호요인의 본질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호요인의 본질적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적응수준에 따라서 탄력성 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수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위험요인의 누적효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위험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 초기에는 위험을 정의하는 단일지표에 초점을 두었다(Masten, Best, & Garmezy, 1990; Glantz & Johnson, 1999). 그러나 위험요인들은 종종 함께 발생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유사한 종류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측정할 때 위험의 누적효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Masten & Wright, 1998). 셋째, 보호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를 반영하지 못했

다는 점이다. 보호요인으로 밝혀진 요인들이 다른 보호요인의 원인으로 또는 다른 보호요인의 결과물로 나타나며 서로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Werner(1993)는 보호요인간의 상호관계성을 기술하고 있다. 즉, 개인의 기질적 성향은 환경을 선택하거나 구조화하도록 하며 그 결과 그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이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유능성(competence)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Masten 등(1999)은 유능성(competence) 연구에서 위험수준과 적응수준을 함께 고려한 분석모델을 제시한바 있다. 그는 역경수준(상, 하)과 적응수준(상, 하)에 따라 4집단을 구분하고, 탄력성 집단(Resilient Group)은 역경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잘하는 집단으로, 부적응 집단(Maladaptive Group)은 역경수준이 높으면서 적응을 못하는 집단으로, 유능성 또는 비도전 집단(Competent/Unchallenged Group)은 역경수준이 낮으면서 적응을 잘하는 집단으로, 취약 집단(Vulnerable Group)은 역경수준이 낮으면서도 적응을 못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sten 등(1999)의 분석모델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탄력성 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구분하였다. 한편 위험요인의 누적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인, 가족, 학교, 사회영역에서의 위험요인과 각 영역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위험사건과 통제할 수 없는 위험사건을 구분하여 포함시켰다. 또한 보호요인간의 상호관계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탄력성 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다른 보호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Sheldon과 King(2001)에 의해 긍정심리학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탄력성 연구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게 되었다. 미국심리학회에서는 2001년 연차대회에서 긍정심리학을 특별한 주제로 다루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개인의 주관적이

고 긍정적인 경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현재 상태에서의 몰입(flow), 기쁨, 행복과 같은 주제와 미래에 대한 낙관성, 희망감 등의 변인을 주제로 삼는다. 집단 수준에서는 책임감, 이타성, 용서, 직업윤리 등과 같이 보다 성숙한 덕목을 다루기도 한다. 이는 탄력성 분야의 기존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개념들이 긍정심리학 분야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학의 다양한 주제 중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람을 세우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 또는 밝은 전망이다(동아새국어사전, 1993)라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일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거나 결과에 대해 밝은 전망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Snyder(1994a)는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이며,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지각하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한다. 반면, 희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며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한다. 한편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라고 여기는 반면, 희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러한 난관이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희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망을 생각하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만 희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도와줄 사회적 지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지지를 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따라

서 희망의 이러한 속성이 역경 상황을 이겨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 인간들은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출생과 죽음, 먹고 자고, 출산을 하는 등 자연의 섭리에 따른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는 이러한 자연법칙 이 외에 문화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사고능력을 활용한다. 사고는 보통 언어나 상징, 개념 등의 연결을 피하며 의미(meaning)를 포함한다. 따라서 의미를 무시한 채 인간 존재를 설명한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특성 중 독특하고도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는 결과가 된다. 의미의 중요한 측면은 의미가 다양한 수준을 지닌다는 것이다. Vallacher와 Wegner(1985, 1987)는 인간의 행동과 경험들이 다양한 의미수준에 의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의 활동들이 낮은 수준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영향과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반면 자신들의 활동들이 높은 의미수준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원칙에 근거하여 외부의 영향과 변화를 통제한다. 낮은 수준의 의미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측면에 관심을 보이지만 높은 수준의 의미는 시간적 제약을 뛰어 넘고 보다 광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와 미래를 연결짓는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낮은 수준의 의미를 지니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고 만다. 반면, 의미수준의 증가는 고통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만족감(positive satisfaction)과 자아 충족감(self fulfillment)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삶의 의미의 이러한 속성이 역경 상황을 이겨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어떠한가?

가설 1-1 위험요인은 학교생활적응과 부적(-)상관을 이룰 것이다.

가설 1-2 보호요인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상관을 이룰 것이다.

가설 1-3 보호요인은 위험요인보다 학교생활 적응을 잘 설명할 것이다.

연구문제 2 적응을 잘하는 탄력성 집단과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 집단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가설 2-1 탄력성 집단은 부적응 집단보다 보호요인의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2 탄력성 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희망과 삶의 의미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초·중·고 학생 2235명과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인천 등 19곳의 복지관 이용 청소년 442명 등 총 2677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일선 학교를 통해 모든 설문을 실시할 경우 위험사건의 경험에 대한 반응빈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거나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설문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우선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44.6%, 여학생이 55.4%로 여학생의 수가 약간 많게 나타났다. 학교급별 분포에서는 초등학생이 20.7%, 중학생이 39.3%, 고등학생이 40.0%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가 약간 많았다. 대상별 분포에서는 학생청소년이 83.5%, 복지관 이용 청소년이 16.5%로 대부분 일반학교를 통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거주지별로는 대도시가 47.5%, 중·소도시 49.4%, 읍·면 지역 3.1%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였다.

### 도구

#### 위험수준 측정

위험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위험요인과 관련된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영역, 사회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위험사건과 통제할 수 없는 위험사건을 구분하여 연구자가 정리한 후, 상담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생 8명을 통해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안면 타당도를 높인 후 총 74문항을 선정하여 설문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50문항만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8$ 로 나타났다(부록 1 참조).

측정방식은 각 문항을 읽고 지난 2년 동안 각 사건을 경험했는지의 여부를 먼저 생각하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았다'에, 경험했다면 그 사건이 준 영향의 심각도를 생각하여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1) '보통정도 심각했다'(2) '매우 심각했다'(3)까지의 3점 리커트식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해당 사건의 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즉, 각 사건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의 정도로 위험수준을 측정하였다. 각 사건이 준 영향의 심각도를 배제한 이유는 보호요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객관적인 위험요인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즉, 영향력의 심각도를 고려하여 위험수준을 구분한다면 한 개인의 점수가 높거나 낮을 때 그 점수가 보호요인의 작용으로 인해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그 사건의 영향력이 적게 발휘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험사건을 얼마나 경험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위험수준을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통제 가능한 위험사건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사건에 대한 구분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적은 것을 통제 불가능한 사건으로, 변화 가능성이 많은 것을 통제 가능한 사건으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상담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및 박사과정생 8명 중 5명 이상의 일치된 의견을 반영하여 구분하였다.

#### 학교생활적응수준 측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척도(Garlington, 1984; 조종현, 1984; 김용래, 1993; 문은식, 2001)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총 51문항의 5점 Likert식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구성하였다. 제작된 척도의 안면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4학기 이상의 교육심리 및 상담전공 박사과정생 5명에게 각 질문의 문항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는데 타당한지의 여부를 묻고, 4인 이상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50문항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학업적응 20문항, 사회적응

20문항, 학교환경 및 일반적응 10문항 등 크게 3영역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으로 나타났고, 학업적응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 사회적응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 환경 및 일반적응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다.

#### 보호요인 측정

**자존감 척도:** Rosenberg(1979)의 자존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효능감 척도:** 김아영(1997)이 수정 개발한 일반적 효능감 척도 24문항 중 16문항을 하위영역 별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낙관성 척도:** 낙관성(optimism) 척도는 개인의 낙관주의적 성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Scheier와 Carver(1985)가 LOT(Life Orientation Test)척도를 개발하였으며, 모두 1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주신(1995)의 연구에서 활용된 낙관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8$ 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질 척도:** 가족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Hudson, Acklin 및 Bartosh(1980)가 개발한 가족관계 척도(Index of Family Relations, IFR)가 있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순현(2000)은 이 척도를 번안하여 대학생 438명에게 사용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순현(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중 13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 척도:** 학교 및 사회 관련 보호요인으로는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지지 척도에서 대상을 친구와 교사로 지정하고 이들로부터 받는 지지의 양을 측정하였다. 윤혜정(1993)은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지지 제공자별로 지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사회적지지 척도는 정서적지지 7문항, 정보적지지 6문항, 평가적지지 6문항, 물질적지지 5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 이었으며, 친구지지 신뢰도가 Cronbach's  $\alpha=.95$ , 교사지지 신뢰도가 Cronbach's  $\alpha=.96$ 으로 나타났다.

**희망 척도:** 희망척도는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희망을 측정하는 특성희망 척도와 개인의 현재상태를 중심으로 희망을 측정하는 상태희망 척도로 크게 구분된다. Snyder와 Harris 등(1991)에 의해 개발된 특성희망 척도(Trait Hope Scale)는 모두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로사고(pathway) 요인 4문항, 주도적 사고(agency) 요인 4문항, 중립(filter)요인 4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8점 Likert 형식으로 측정되며 중립문항은 채점에서 제외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특성희망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로 나타났고, 통로사고 요인은 Cronbach's  $\alpha=.80$ , 주도적 사고 요인은 Cronbach's  $\alpha=.77$ 로 나타났다. 한편, Snyder와 Sympson 등(1996)에 의해 개발된 상태희망 척도(State Hope Scale)는 모두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로사고 요인 3문항, 주도적 사고 요인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상태희망 척도의 전체 신뢰도가 Cronbach's  $\alpha=.85$ 로 나타났으며, 통로사고 요인은 Cronbach's  $\alpha=.78$ , 주도적 사고 요인은 Cronbach's  $\alpha=.78$ 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지금

현재’의 자신의 상태를 질문하지 않고 일반적인 자신의 생각을 질문하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상태희망을 측정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특성희망을 측정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위의 두 척도의 총합을 계산하여 전체적인 희망척도로 사용하였다.

**삶의 의미 척도:** 삶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Crumbaugh와 Maholick(1981)이 제작한 Purpose In Life (PIL) Test를 사용하였다. PIL 척도는 Frankl(1976)이 말하는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 Likert 형식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분은 13개의 문장을 완성하는 형태로 되어있고 셋째 부분은 개인의 목표, 야망, 목적을 쓰도록 되어 있다. 둘째와 셋째 부분은 임상적으로 훈련을 받은 전문가만이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다른 변인과의 관계성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유형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홍미혜(1999)가 번안하여 사용한 PIL척도 18문항 중 10문항만을 선정하여 Likert 형식의 7점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로 나타났다.

#### 절차

설문자료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학교나 복지관에 전달되었고,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PSS 11.0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고위험 상황에서 적응을 잘하는 탄력성 집단과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 결 과

### 위험수준과 적응수준에 따른 집단유형 구분

#### 위험수준에 대한 구분

위험수준을 구분하기 위하여 본 분석에서 활용된 생활사건 50문항에 대한 경험 여부를 중심으로 통제 불가능한 유형의 위험사건과 통제 가능한 유형의 위험사건으로 구분하였다. 통제 불가능한 유형의 위험사건은 모두 22문항이며, 통제 가능한 유형의 위험사건은 모두 28문항이다. 이들의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22문항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사건 중 단 하나의 사건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1.0%였으며, 1개의 사건을 경험했음 20.8%, 2~3개의 사건을 경험했음 24.0%, 4~5개의 사건을 경험했음 11.4%, 6~9개의 사건을 경험했음 10.0%, 10개 이상의 사건을 경험했음 2.8%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3개 이하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사건을 경험하고 있으며, 평균적인 경험 횟수는 2.36개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 가능한 위험사건의 경우, 28문항의 사건 중 하나의 사건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2%에 불과하였고, 1~6개의 사건을 경험했음 33.2%, 7~

11개의 사건을 경험했음 30.1%, 12개 이상의 사건을 경험했음 33.5%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11개 이하의 통제 가능한 위험사건을 경험하고 있으며, 평균적인 경험횟수는 9.26개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고위험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위험사건의 평균값 2.36이상인 경우와 통제 가능한 위험사건의 평균값 9.26이상인 경우로 정하였고, 저위험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위험사건의 평균값 2.36미만인 경우와 통제 가능한 위험사건의 평균값 9.26미만으로 정하였다. 위험수준을 구분하는데 있어 위험사건 50문항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중심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제 불가능한 사건과 통제 가능한 사건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겪는 생활 사건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며, 그 속성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겪은 위험수준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사건과 통제 가능한 위험사건을 모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연구들(Masten, Best, & Garmezy, 1990; Glantz & Johnson, 1999)이 주로 단일한 영역에서의 위험수준을 측정할 것을 보완한 것이며, 위험수준 측정시 다양성(multiplicity)의 중요성을 강조한 논의(Masten & Wright, 1998)를 반영한 결과이다.

#### 적응수준에 대한 구분

청소년들이 현재 학교생활에서 어느 정도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적응수준은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에는 학업적응 20문항, 사회적응 20문항, 환경 및 일반적응 10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생활적응 전

체의 평균값은 3.10이며, 학업적응의 평균값은 2.71, 사회적응의 평균값은 3.47, 환경 및 일반적응의 평균값은 3.13으로 나타났다. 적응수준에서 상(上)집단은 학업적응의 평균값 2.71 이상인 경우와 사회적응의 평균값 3.47 이상인 경우와 환경 및 일반적응의 평균값 3.13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으며, 적응수준에서 하(下)집단은 학업적응의 평균값 2.71 미만인 경우와 사회적응의 평균값 3.47 미만인 경우와 환경 및 일반적응의 평균값 3.13 미만으로 정하였다.

적응수준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데 있어 학교생활 적응 전체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각 하위영역의 평균값을 모두 반영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고위험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는 탄력성 집단과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 적응수준의 구분 기준으로 학교성적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교사 또는 부모로부터의 평가가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적응수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성적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 응답자들의 반응에만 의존하는 형태를 취했다. 따라서 이러한 객관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각 하위영역의 점수를 모두 반영하고자 했다.

**탄력성 집단과 부적응 집단 구분**

위에서 구분한 위험수준과 적응수준을 토대로 표 1과 같이 4개 집단을 구분하였다. 첫째, 위험수준이 낮고 적응수준이 낮은 취약성 집단(vulnerable group) 둘째, 위험수준이 낮으면서 적응수준이 높은 유능성 집단(competence group) 셋째, 위험수준이 높고 적응수준이 낮은 부적응 집단(maladaptive group) 넷째, 위험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응수준이 높은 탄력성 집단(resilient group)이다.

표 1. 위험수준과 적응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

집 단 구 분		구 분 기 준	사 례 수(비 율)
위험수준	하	통제 불가능사건 평균(M=2.36)미만 & 통제 가능사건 평균(M=9.26)미만	1097 (65.3)
	상	통제 불가능사건 평균(M=2.36)이상 & 통제 가능사건 평균(M=9.26)이상	582 (34.7)
적응수준	하	학업적응 평균(M=2.71)미만 & 사회적응 평균(M=3.47)미만 & 환경 및 일반적응 평균(M=3.13)미만	648 (54.7)
	상	학업적응 평균(M=2.71)이상 & 사회적응 평균(M=3.47)이상 & 환경 및 일반적응 평균(M=3.13)이상	537 (45.3)
집단구분	집단1(취약성 집단)	위험수준 하 & 적응수준 하	165 (21.7)
	집단2(유능성 집단)	위험수준 하 & 적응수준 상	320 (42.1)
	집단3(부적응 집단)	위험수준 상 & 적응수준 하	224 (29.5)
	집단4(탄력성 집단)	위험수준 상 & 적응수준 상	51 (6.7)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문제 1]에서 설정한 하위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하위요인들이 학교생활적응과 갖는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  $r$ 을 산출하였고, 이들 독립변인들이 학교생활적응을 어느 정도로 잘 설명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

첫째, 위험요인과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2-1에 제시하였다.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위험요인의 하위요인들과 학교생활

표 2-1. 위험요인과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 계수 ( $r$ )

구 분		학교적응 (전체)	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일반 적응
개인(통제 불가능)	01 개인장애	-.14**	-.08**	-.14**	-.13**
	02 (성)폭행/납치	-.09**	-.06**	-.11**	-.06**
개인(통제 가능)	03 열등감	-.15**	-.13**	-.09**	-.13**
	04 불안/주의 산만	-.25**	-.26**	-.17**	-.18**
	05 충동/공격성	-.29**	-.19**	-.22**	-.29**
	06 우울/포기	-.21**	-.15**	-.14**	-.21**
가족(통제 불가능)	07 부모/가족죽음	-.08**	-.07**	-.08**	-.04*
	08 부모/가족질병	-.09**	-.06**	-.08**	-.07**
	09 부모/이혼실직	-.17**	-.14**	-.16**	-.12**
가족(통제 가능)	10 가족관계	-.22**	-.16**	-.20**	-.18**
	11 가족생활	-.24**	-.19**	-.18**	-.20**
학교(통제 불가능)	12 학교폭력	-.16**	-.09**	-.15**	-.14**
학교(통제 가능)	13 학업성적	-.15**	-.12**	-.06**	-.17**
	14 또래관계	-.14**	-.11**	-.10**	-.12**
	15 교사관계	-.23**	-.15**	-.23**	-.18**
사회(통제 불가능)	16 유해환경	-.21**	-.15**	-.18**	-.19**
사회(통제 가능)	17 비행행동	-.16**	-.12**	-.17**	-.11**
개인/가족/ 학교/사회	개인위험(전체)	-.30**	-.23**	-.22**	-.27**
	가족위험(전체)	-.27**	-.21**	-.23**	-.22**
	학교위험(전체)	-.23**	-.16**	-.19**	-.21**
	사회위험(전체)	-.21**	-.15**	-.20**	-.17**
위험사건(전체)	-.33**	-.24**	-.27**	-.28**	

\* $p < .05$  \*\* $p < .01$

표 2-2. 보호요인과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 계수 (r)

구 분	학교적응(전체)	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일반적응
자존감	.50**	.45**	.39**	.38**
효능감	.45**	.47**	.31*	.33**
낙관성	.43**	.39**	.36**	.33**
가족관계 질	.40**	.28**	.40**	.33**
교사지지	.57**	.34**	.60**	.46**
친구지지	.38**	.23**	.46**	.26**
희망(전체)	.55**	.54**	.49**	.35**
삶의 의미	.58**	.48**	.45**	.47**

\*  $p < .05$  \*\*  $p < .01$

적응의 하위요인들과의 상관 계수가 모두 부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이러한 결과는 위험 요인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이 학업 수행을 잘하지 못하고, 친구 또는 교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며, 학교환경 등에 대한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위험요인은 학교생활 적응과 부적 상관을 이룰 것이라는 가설 1-1이 지지되었다.

둘째, 보호요인과 학교생활적응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2-2에 제시하였다. 표 2-2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보호요인의 하위영역들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들과의 상관 계수가 모두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환경적 보호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는 청소년이 학업 수행을 잘하고 있고, 친구 또는 교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잘 형성하며, 학교환경 등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보호요인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 상관을 이룰 것이라는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첫째, 위험요인들 중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잘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험요

인의 하위요인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3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 보면,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전체 설명변량( $R^2$ )이 14%로 나타났고, 충동·공격성향이나 불안·주의 산만과 같은 개인요인, 부모의 이혼이나 실직, 그리고 가족간의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같은 가족요인, 교사와의 불편한 관계와 같은 학교요인, 유해환경과 같은 사회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보호요인들 중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잘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보호요인의 하위요인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4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 보면,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전체 설명변량( $R^2$ )이 5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교사지지, 삶의 의미, 희망, 효능감, 가족관계 질, 친구지지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희망과 삶의 의미 변인의 표준화 회귀 계수( $\beta$ )가 교사지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이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희망과 삶의 의미 변인이 다른 보호요인들에 비해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3.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위험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구 분		B	$\beta$	T
개인(통제 불가능)	01 개인장애	-.05	-.02	-1.03
	02 (성)폭행/납치	-.11	-.02	-1.07
개인(통제 가능)	03 열등감	-.04	-.04	-1.58
	04 불안/주의산만	-.11	-.09	-3.43**
	05 충동/공격성	-.18	-.14	-5.28***
	06 우울/포기	-.02	-.01	-.56
가족(통제 불가능)	07 부모/가족죽음	.10	.01	.11
	08 부모/가족질병	.16	.05	2.03*
	09 부모/이혼실직	-.12	-.06	-2.37*
가족(통제 가능)	10 가족관계	-.11	-.05	-1.90
	11 가족생활	-.13	-.09	-3.62***
학교(통제 불가능)	12 학교폭력	-.03	-.01	-.54
학교(통제 가능)	13 학업성적	.02	.02	.66
	14 또래관계	.07	.04	1.66
	15 교사관계	-.18	-.10	-4.36***
사회(통제 불가능)	16 유해환경	-.13	-.06	-2.02*
사회(통제 가능)	17 비행행동	-.05	-.02	-.74
상 수		3.41		136.06***
$R^2=.14$		Adjusted $R^2=.13$		$df=17$
				$F=19.92^{***}$
* $p < .05$		** $p < .01$		*** $p < .001$

표 2-4.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보호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구 분	B	$\beta$	T	
자존감	.03	.04	1.49	
효능감	.13	.12	5.97***	
낙관성	.02	.02	.90	
가족관계 질	.06	.08	4.78***	
친구지지	.04	.05	3.01**	
교사지지	.21	.33	18.13***	
희망(전체)	.08	.19	8.73***	
삶의 의미	.10	.20	9.10***	
상 수	.72		9.95***	
$R^2=.54$		Adjusted $R^2=.54$		$df=8$
				$F=275.92^{***}$
** $p < .01$		*** $p < .001$		

표 2-5.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위험 · 보호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구 분		B	$\beta$	T	R <sup>2</sup> (F)	R <sup>2</sup> 변화량 (F변화량)
1단계	삶의 의미	.291	.582	29.738***	.339 (884.319***)	.339 (844.319***)
2단계	삶의 의미	.211	.423	22.482***	.480	.142
#	교사지지	.257	.408	21.691***	(797.673***)	(470.485***)
3단계	삶의 의미	.146	.293	14.100***	.524	.044
	교사지지	.232	.369	20.192***	(633.515***)	(159.039***)
#	희망	.111	.258	12.611***		
4단계	삶의 의미	.131	.262	12.574***	.540	.016
	교사지지	.227	.361	20.033***	(506.096***)	(59.427***)
	희망	.114	.265	13.168***		
#	충동/공격성(위협)	-.173	-.130	-7.709***		
5단계	삶의 의미	.112	.225	10.420***	.549	.009
	교사지지	.227	.361	20.207***	(419.790***)	(34.826***)
	희망	.098	.227	10.865***		
	충동/공격성(위협)	-.155	-.117	-6.941***		
#	효능감	.128	.118	5.901***		
6단계	삶의 의미	.109	.219	10.224***	.556	.007
	교사지지	.224	.356	20.096***	(359.195***)	(25.884***)
	희망	.099	.230	11.074***		
	충동/공격성(위협)	-.126	-.095	-5.502***		
	효능감	.130	.120	6.026***		
#	유해환경(위협)	-.198	-.085	-5.088***		
7단계	삶의 의미	.105	.209	9.778***	.562	.006
	교사지지	.209	.332	18.078***	(314.883***)	(22.318***)
	희망	.094	.217	10.387***		
	충동/공격성(위협)	-.128	-.096	-5.622***		
	효능감	.124	.115	5.783***		
	유해환경(위협)	-.217	-.093	-5.574***		
#	친구지지	.064	-.086	4.724***		

표 2-5 계속

	구 분	B	$\beta$	T	R <sup>2</sup> (F)	R <sup>2</sup> 변화량 (F변화량)
8단계	삶의 의미	.097	.195	8.951***	.565 (278.602***)	.003 (11.360**)
	교사지지	.204	.325	17.598***		
	희망	.092	.213	10.237***		
	충동/공격성(위험)	-.121	-.091	-5.306***		
	효능감	.123	.114	5.747***		
	유해환경(위험)	-.200	-.086	-5.116***		
	친구지지	.006	.080	4.380***		
	# 가족관계 질	.004	-.061	3.370***		
9단계	삶의 의미	.097	.194	8.948***	.567 (249.978***)	.002 (9.701**)
	교사지지	.199	.316	17.014***		
	희망	.092	.214	10.299***		
	충동/공격성(위험)	-.112	-.084	-4.854***		
	효능감	.124	.115	5.807***		
	유해환경(위험)	-.162	-.070	-3.973***		
	친구지지	.061	.081	4.479***		
	# 교사관계(위험)	-.096	-.054	-3.115**		
10단계	삶의 의미	.095	.191	8.773***	.568 (225.941***)	.001 (4.727*)
	교사지지	.199	.317	17.056***		
	희망	.092	.213	10.277***		
	충동/공격성(위험)	-.090	-.067	-3.581***		
	효능감	.120	.110	5.571***		
	유해환경(위험)	-.159	-.068	-3.900***		
	친구지지	.063	.084	4.611***		
	# 불안/주의 산만(위험)	-.052	-.040	-2.174*		
11단계	삶의 의미	.097	.195	8.927***	.569 (206.163***)	.001 (4.188*)
	교사지지	.199	.317	17.087***		
	희망	.091	.210	10.095***		
	충동/공격성(위험)	-.105	-.079	-4.026***		
	효능감	.124	.115	5.766***		
	유해환경(위험)	-.161	-.069	-3.955***		
	친구지지	.061	.081	4.484***		
	# 우울/포기(위험)	.050	.038	2.046*		

\* $p < .05$  \*\* $p < .01$  \*\*\* $p < .001$  #; 해당 단계에 새롭게 추가된 변수

셋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중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잘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하위요인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 2-5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총 11개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전체 설명변량( $R^2$ )이 56.9%로 나타났다.  $R^2$ 의 변화량을 중심으로 설명력이 높은 변수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삶의 의미, 교사지지, 희망(전체), 충동·공격성(위험), 효능감, 유해환경(위험), 친구지지, 가족관계의 질, 교사관계(위험), 불안·주의산만(위험), 우울·포기(위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전체 설명변량( $R^2$ )이 56.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위험요인만 투입된 경우 위험요인의 조정된 전체 설명변량(Adjusted  $R^2$ )이 13%, 보호요인만 투입된 경우 보호요인의 조정된 전체 설명변량(Adjusted  $R^2$ )이 5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 위험요인 보다 보호요인의 설명변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상관을 고려한 상태에서 삶의 의미, 교사지지, 희망 등의 보호요인이 상위단계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 보호요인이 위험요인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보호요인이 위험요인보다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잘 설명할 것이라는 가설 1-3이 지지되었다.

### 탄력성 집단과 부적응 집단의 차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위험요인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보호요인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보호요인이 위험요인보다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잘 설명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고위험 상황에서도 이러한 보호요인의 중요성이 유지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응을 잘하고 있는 탄력성

표 3-1. 탄력성 집단과 부적응 집단에 따른 보호요인의 평균

구 분	부적응 집단		탄력성 집단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존감	2.89	(.57)	3.47	(.49)	-6.80***
효능감	2.73	(.49)	3.11	(.44)	-5.09***
낙관성	3.17	(.59)	3.71	(.53)	-6.00***
가족관계 질	3.40	(.73)	3.90	(.84)	-4.33***
친구지지	3.48	(.75)	4.06	(.73)	-4.84***
교사지지	2.58	(.84)	3.54	(.69)	-7.30***
희망(전체)	3.29	(1.10)	4.71	(1.01)	-8.36***
삶의 의미	3.94	(1.05)	5.20	(.88)	-7.97***

\*\*\*  $p < .001$

표 3-2. 탄력성 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구분하는 보호요인

구분	B	S.E.	Wald	R	Exp(B)
자존감	.19	.29	.44	.00	1.21
효능감	.24	.31	.60	.00	1.27
낙관성	.37	.26	2.01	.00	1.45
가족관계 질	.21	.16	1.68	.00	1.24
친구지지	.17	.18	.92	.00	1.19
교사지지	.69	.16	18.73***	.18	1.98
희망(전체)	.41	.13	9.62*	.12	1.51
삶의 의미	.30	.15	3.79*	.06	1.35
상수	-9.78	1.28	58.49***		
Goodness of Fit	$\chi^2=7.14$	$df=8$			
Model $\chi^2$	$\chi^2=113.97***$	$df=8$			
Nagelkerke $R^2$	$R^2=.33$				

\*  $p < .05$  \*\*\*  $p < .001$

집단과 적응을 못하고 있는 부적응 집단을 구분하고,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보호요인의 점수를 중심으로 탄력성 집단과 부적응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3-1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탄력성 집단이 부적응 집단보다 모든 보호요인의 평균값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p < .001$ ). 따라서 탄력성 집단은 부적응 집단보다 보호요인의 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2-1이 지지되었다.

둘째, 탄력성 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보호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sup>1)</sup>을 실시하였다. 표 3-2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지지, 희망, 삶의 의미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 이 분석방법은 종속변수가 이변량(dichotomy) 형태를 지닐 때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결과는 적응을 잘하는 탄력성 집단과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교사지지, 희망, 삶의 의미 변인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탄력성 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 희망과 삶의 의미 변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 2-2가 지지되었다.

## 논 의

### 결과요약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요인은 학교생활 적응과 부적 상관을 지니며, 보호요인은 정적 상관을 지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 개인이 위험요인을 많이 지닐수록 학교생활에서 적응 수준이 낮아지며, 이와는 반대로 보호요인을 많이 지닐수록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위험요인 중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잘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험요인의 하위요인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전체설명 변량( $R^2$ )이 14%로 약간 낮게 나타났고, 충동·공격성향이나 불안·주의산만과 같은 개인요인, 부모의 이혼이나 실직, 그리고 가족간의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같은 가족요인, 교사와의 불편한 관계와 같은 학교요인, 유해환경과 같은 사회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개인,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종류도 통제할 수 있는 사건과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모두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보호요인 중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잘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보호요인의 하위요인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전체설명변량( $R^2$ )이 5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교사지지, 삶의 의미, 희망, 효능감, 가족관계 질, 친구지지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희망과 삶의 의미 변인의 표준화 회귀 계수( $\beta$ )가 교사지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이 학교생활 적응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희망과 삶의 의미 변인이 다른 보호요인들에 비해 보다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중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잘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하위요인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총 11개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전체 설명변량( $R^2$ )이 56.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R^2$ 의 변화량을 중심으로 설명력이 높은 변수 순서대로 살펴보면, 삶의 의미, 교사지지, 희망(전체), 충동·공격성(위험), 효능감, 유해환경(위험), 친구지지, 가족관계의 질, 교사관계(위험), 불안·주의산만(위험), 우울·포기(위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고위험 상황에서 적응을 잘하는 탄력성 집단과 부적응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간에 따른 보호요인의 점수를 비교했을 때 탄력성 집단에서 모든 보호요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요인들간 상관을 고려한 상태에서 탄력성 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교사지지, 희망, 삶의 의미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 < .01$ ,  $p < .05$ ).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보호요인들 각각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보호요인들과의 상관성이 고려된 상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의 영향력을 반드시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상정한 희망과 삶의 의미 변인이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른 보호요인들에 비해 보다 큰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론적 의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탄력성 연구 이론에서 지니는 의미를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위험요인보다 보호요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학교생활적

응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서 위협요인보다 보호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위협요인들의 특성과 영향을 강조했던 연구들(Huston, 1991; McCormick & Brooks-Gunn, 1989; Parker et al., 1988)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며, 청소년의 적응 및 부적응 문제 이해에 대한 보다 새로운 시각을 경험적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위협요인들 중 본인의 신체적 장애, 부모의 이혼이나 실직, 가정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과 같은 위협요인은 상당부분 변화시킬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존감, 효능감, 낙관성, 희망, 삶의 의미, 가족관계의 질,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보호요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진 또는 대체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위협요인들이 많이 존재하더라도 보호요인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개발하여 증진시킨다면 위협요인들의 부정적 영향력은 현저히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희망과 삶의 의미 변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생활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 희망과 삶의 의미 변인이 교사지지와 함께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력성 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구분하는 보호요인들로 교사지지, 희망, 삶의 의미 변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 < .05$ ). 이러한 결과는 희망이 낙관성(Snyder, Harris, et al., 1991), 효능감 (Magaletta & Oliver, 1999), 자존감(Curry, Snyder, Cook, Ruby, & Rehm, 1997; Snyder, Cheavens, & Michael, 1999)과 높은 상관을 지니면서도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과는 별도로 고유한 설명변량을 지닌다는 연구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많은 보호요인들은 다른 변인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

타난 희망과 삶의 의미 변인의 설명력은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주로 언급된 변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상담적 의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상담 장면에서 시사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담자가 지닌 자원들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문제와 관련된 상담을 할 때, 부적응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주요한 생활환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과 아울러 현재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강조점을 둔 대표적 상담이론으로 로저스의 인본주의적 상담이론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진단적 모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보호요인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상담 장면에서 적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변화의 폭이 심한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조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인간의 부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인들은 개인, 가족, 학교, 사회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위협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상담과정에서 다양한 위협요인 및 보호요인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서는 청소년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가족구성원 특히 부모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의 주요 생활환경인 학교에서 받는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셋째,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희망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상담과정을 통해 내담자의 불안 수준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우울감이 얼마나 감소했는가, 자존감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내담자가 희망감을 현재 어느 정도 느끼고 있고, 현재의 상담과정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성과를 가져오는 공통요인 중의 하나로 희망을 언급하고 있는 연구(Frank & Frank, 1991)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희망과 삶의 의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 교육 및 사회적 의미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교육적,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현장에서 교사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고위험 상황에서 적응을 잘하는 탄력성 집단과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들로 교사의 지지와 희망, 그리고 삶의 의미가 다른 변인들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교사의 지지적인 관심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교사의 이미지는 단순히 지식을 제공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닐 것이다. 교사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삶의 지표를 제공해 주는 인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야말로 청소년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주게 된다.

둘째, 청소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의 유기적 협조·연계체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가정의 문제도 아니며 우리 사회가 지닌 총체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발달적 적응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보호요인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결과들은 연구자가 상정했던 가설들을 대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 소기의 연구목적에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감안할 때 현재 나타난 결과들을 단정적으로 결론지어 일반화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고위험 상황에서 적응을 잘하는 탄력성 집단과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결과 측정치로써 학교생활적응 변인이 측정되었는데, 이 측정치가 청소년들의 주관적 응답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생활적응의 하위영역들을 모두 반영하는 노력을 시도했지만 학업성적이나 교사 및 부모의 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평정치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청소년의 적응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일선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의 정책적 협조를 얻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의 탄력성 연구를 하면서 탄력성 자체를 측정하는 측정치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탄력성 척도의 대부분이 보호요인들의 특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그리고 탄력성 변인이 함께 분석되는 설계에서는 보호요인과 탄력성 척도가 중복되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탄력성의 개념이 보호요인의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 연구의 한계점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 개인의 탄력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탄력성 척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희망과 삶의 의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에 어떻게 기여하며, 희망과 삶의 의미 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개발되어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이영 (1997). 자기효능감 및 하위척도들의 학교별 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 미간행본.
- 김주신 (1995). 낙관주의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택호 (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래 (1993).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변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순현 (2000).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동아새국어사전 (1993). 동아출판사편집국. 동아출판사.
- 문은식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혜정 (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종현 (1984). 고교생의 학교생활적응 문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미혜 (1999).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삶의 의미 수준이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74).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and delinquent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465-520.
- Bischof, G. P., Stith, S. M., & Wilson, S. M. (1992). A comparison of family systems of adolescent sexual offenders and nonsexual offending delinquents. *Family Relations*, 41, 318-323.
- Crumbaugh, J. C., & Maholick, L. T. (1981). *Manual of instructions for The Purpose in Life Test*.

- Munster, Indiana.
- Curry, L. A., & Snyder, C. R., Cook, D. L., Ruby, B.C., & Rehm, M. (1997). The role of hope in student-athlete academic and sport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257-1267.
- Dryfoos, J. G. (1990). *Adolescents at Risk-prevalence and preven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k, J. D., & Frank, J. B. (1991). *Persuasion and healing (3rd. 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Frankl, V. E. (1976).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Pocket. (Original work published, 1959).
- Garlington, N. K. (1984).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a students self-concept, level of anxiety and attitude toward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New Orleans.
- Garmezy, N. (1971). Vulnerability research and issue of primary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1, 101-116.
- Garm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armezy, N. Z. (1993a).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In D. C. Funder, R. D. Parke, C. Tomlinson-Keasey, & K. Widaman (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pp. 377-39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lantz, M. D., & Johnson, J. L. (Eds.). (1999). *Resilience and development: Positive life adaptation*. New York: Plenum.
- Hudson, W. W., Acklin, J. D., & Bartosh, J. C. (1980). Assessing discord in family relationships. *Social Work Research and Abstracts*, 21-29.
- Huston, A. (Ed.) (1991).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eber, R., & Farrington, D. P. (1998). *Serious & Violent Juvenile Offenders*. Thousands Oaks: Sage Publications.
- Lösel, F., Bliesener, T., & Köferl, P. (1989). On the concept of invulnerability: Evaluation and first result of the Bielefeld project. In M. Brambring, F. Lösel, & H. Skowronek (Eds.), *Children at risk: Assessment, longitudinal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186-219). New York: Walter de Gruyter.
- Magaletta, P. R., & Oliver, J. M. (1999). The hope construct, will and ways: Their relative relations with self-efficacy, optimism, and general well-be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539-551.
- Masten, A. S., & Reed, M. G. J. (2002). Resilience in development.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74-8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sten, A. S., & Wright, M. O. D. (1998). Cumulative risk and protection models of child maltreatment. In B. B. R. Rossman & M. S. Rosenberg (Eds.), *Multiple victimization of children: Conceptual, developmental, research and treatment issues* (pp. 7-30). Binghamton, New York: Haworth.
-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 (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2, No., 425-444.
- Masten,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gen, A., Garmezy, N., & Ramirez, M. (1999).

-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 143-169.
- McCormick, M. C., & Brooks-Gunn, J. (1989). Health care children and adolescents. In H. Freeman & S. Levine (Eds.), *Handbook of Medical Soci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Parker, S., Greer, S., & Zuckerman, B. (1988). Double jeopardy: the impact of poverty on early child development. *The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5, 1227-1240.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J. E. Rolf (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Vol. 3: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pp. 48-74).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heldon, K. M., & King, L. (2001). Why positive psychology is necessary. *American Psychologist*, 56(3), 216-217.
- Snyder, C. R. (1994a). Hope and optimism. In V.S. Ramachandren (Ed.),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Vol. 2, pp.535-54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nyder, C. R., Cheavens, J., & Michael, S.T. (1999). Hoping In C.R. Snyder (Ed.), *Coping: The Psychology of what works* (pp. 205-23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Yoshinobu, L., Gibb, J., Langelle, C., & 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 Snyder, C. R., Sympson, S. C., Ybasco, F. C., Borders, T. F., Babyak, M. A., & Higgins, R. L.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ate Hop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21-335.
- Thornberry, T. P. (1994). Violent families and youth violence. *Fact Sheet #21*.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JJDP.
- Vallacher, R. R., & Wegner, D. M. (1985). *A theory of action identification*. Hillsdale, NJ: Erlbaum.
- Vallacher, R. R., & Wegner, D. M. (1987). What do people think they're doing: Action identification and human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94, 3-15.
- Vuchinich, S., Bank, L., & Patterson, G. R. (1992). Parenting, peers and stability of antisocial behavior in preadolescent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510-521.
- Werner, E. E. (1993).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Perspectives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03-515.
- Werner, E. E., & Smith, R. S.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New

- York: McGraw-Hill.
-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Zigler, E., Taussing, C., & Black, K. (1992).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a promising preventive for juvenile delinquency. *American Psychologist*, 47, 997-1006.

원 고 접 수 일 : 2004. 6. 7

수정원고접수일 : 2004. 7. 19

게 재 결 정 일 : 2004. 8. 3

K C I

## The Effects of Hope and Meaning of Life on Adolescents' Resilience

**Tack-Ho Kim**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Jae-Hwan Kim**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Hanyang University Hospital**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between well-adjusted resilient adolescents and maladaptive adolescents. In addition, it attempted to identify the significant protective factors that are likely to facilitate the resilience development. The participants were 2677 stud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s, among which 442 were students supported from social welfare agencie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chool adaptation variance was accounted for more by protective factors than by risk factors. Second, in the high risk situations, the resilient group had higher scores than the maladaptive group on the protective factors, such as self-esteem, self-efficacy, optimism,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peer support, teacher support, hope and meaning of life. Meanwhile, i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ly hope, teacher support, and meaning of lif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istinguishing the resilient group from the maladaptive grou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ope and meaning of life act as important factors in distinguishing between resilient groups and maladaptive groups.

*Key Words : adolescent, resilience, hope, meaning of life, risk factor, protective factor, school adaptation*

부록 1. 생활사건 척도의 영역별 문항내용, 문항번호 및 신뢰도 (최종분석)

영역	문항번호 및 문항내용	요인영역	문항수	신뢰도			
				전체	고등	중등	초등
개인적 위험 (12 문항) a = .796	<b>통제 불가능</b> ○ 개인장애 : 신체장애, 정신장애, 사고나 질병, 낮은 지적 능력 등 <b>01▶개인장애</b> 1.본인의 신체장애(예: 지체장애, 청각장애 등) 2.본인의 정신장애(예: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3.본인의 갑작스런 신체적 질병이나 부상 <b>02▶(성)폭행/납치</b> 5.심한 폭행 또는 성폭행을 당함 6.납치나 유괴를 당함	요인10 : 개인장애 (1~3)  요인11 : 폭행/납치 (5, 6)	5 문항	a = .796	a = .780	a = .765	a = .865
	<b>통제 가능</b> ○ 성격특성 -열등감 -불안/주의 집중 못함 -충동/공격성 -우울/포기 <b>03▶열등감</b> 8.본인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 커짐(키, 몸무게 등) <b>04▶불안/주의산만</b> 9.주의집중을 못하고 산만해짐 10.차분하지 못하고 안전부절 해짐 <b>05▶충동/공격성향</b> 11.쉽게 욕하는 성질이 많아짐 12.다른 사람을 치고 싶은 충동 많아짐 <b>06▶우울/포기성향</b> 13.갑자기 울고 싶거나 눈물이 많이 남 14.무슨 일이건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남	요인2 : 개인성격 (8~14)	7 문항	a = .611	a = .515	a = .545	a = .845
가족 관련 위험 (19 문항) a = .850	<b>통제 불가능</b> ○ 위기사건A -부모/가족 죽음 -부모/가족 질병 ○ 위기사건B -부모이혼/ 별거 -부모실직/ 부도 <b>07▶부모/가족의 죽음</b> 15.부모의 죽음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 하심) 16.부모의 갑작스런 죽음(사고, 심장마비 등) <b>08▶부모/가족의 질병</b> 22.부모의 정신질환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23.부모나 가족중 한사람의 만성적 신체질환 24.부모나 가족중 한사람의 갑작스런 사고나 부상 <b>09▶부모이혼/실직</b> 17.부모의 이혼 및 별거 19.어려서부터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웠음(예, 생활보호 대상자, 빈곤가정) 20.부모의 사업실패 또는 실직 21.가정의 경제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짐	요인6 : 부모죽음 (15~16, 하심)  요인6 : 부모질병 (22~24)  요인5 : 부모이혼/실직 (17,19~21)	9 문항	a = .850	a = .809	a = .838	a = .911
	<b>통제 가능</b> ○ 가족갈등 -부모의 자녀 학대 -부부간 불화, 다툼 -부모 형제 간 다툼 -빈약한 가족 유대 <b>10▶가족갈등</b> <b>10▶가족관계</b> 30.부모에게 심하게 맞음 31.부모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음 32.부모간의 불화나 다툼이 심함 33.부모와 심하게 다툼 34.형제자매와 심하게 다툼 35.가족간의 대화가 거의 없음 <b>11▶가족생활</b> 36.용돈이 매우 부족함 37.용돈이 없어 오락게임이나 여가를 즐기지 못함 38.용돈이 없어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함 39.부모님이 집안일을 많이 시킴	요인3 : 가족관계 (30~35)  요인4 : 가족생활 (36~39)	10 문항	a = .766	a = .721	a = .746	a = .869
	○ 가족갈등 -부모의 자녀 학대 -부부간 불화, 다툼 -부모 형제 간 다툼 -빈약한 가족 유대 <b>10▶가족갈등</b> <b>10▶가족관계</b> 30.부모에게 심하게 맞음 31.부모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음 32.부모간의 불화나 다툼이 심함 33.부모와 심하게 다툼 34.형제자매와 심하게 다툼 35.가족간의 대화가 거의 없음 <b>11▶가족생활</b> 36.용돈이 매우 부족함 37.용돈이 없어 오락게임이나 여가를 즐기지 못함 38.용돈이 없어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함 39.부모님이 집안일을 많이 시킴	요인3 : 가족관계 (30~35)  요인4 : 가족생활 (36~39)	10 문항	a = .816	a = .797	a = .824	a = .852

영역		문항번호 및 문항내용	요인영역	문항수	신뢰도			
					전체	고등	중등	초등
학교관련 위험 (11 문항)  a= .7724	통제 불가능  ○ 학교폭력 -폭행 -따돌림	○ 학교폭력(따돌림, 왕따) <b>12▶ 학교폭력</b> 48. 친구들로부터 돈을 빼기거나 폭행을 당함 49.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함 50. 친구로부터 무시를 당함	요인7 (학교폭력) (48~50)	3문항	a= .772  a= .696	a= .739  a= .643	a= .761  a= .667	a= .864  a= .819
	통제 가능  ○ 학업성적 -낮은 성적 -시험, 숙제  ○ 또래관계 -다툼 -헤어짐  ○ 교사관계 -꾸지람 -차별대우	○ 학교생활 <b>13▶ 학업성적</b> 54. 중요한 시험을 잘못 봄 55. 노력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음 56. 숙제나 시험이 너무 많음  <b>14▶ 또래관계</b> 57. 친구와 심하게 다툼(이성친구 포함) 58. 동성친구와 헤어짐 59. 이성친구와 헤어짐  <b>15▶ 교사관계</b> 44. 선생님께서 심하게 야단을 맞음 45. 선생님께서 차별대우를 받음	요인8 (학업성적) (54~56)  요인10 (친구관계) (57~59)  요인12 (교사관계) (44,45)	8문항	a= .738	a= .715	a= .732	a= .808
사회환경 위험 (8 문항)  a= .8257	통제 불가능  ○ 유해환경 -유해업소 밀집 -접근용이성	○ 유해환경 <b>16▶ 유해환경</b> 61. 집 근처에 유해업소가 많이 생김 62. 담배, 술, 약물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음 63. 집 근처에 불량배가 많음 64. 주위에 중퇴한 친구들이 많이 있음 74. 가까운 친한 친구 중에 중퇴한 친구가 있음	요인1 (유해환경) (61~64, 74)	5문항	a= .825  a= .730	a= .816  a= .724	a= .812  a= .715	a= .903  a= .839
	통제 가능  ○ 비행행동 -흡연, 음주 -유해업소 출입	○ 비행행동 <b>17▶ 비행행동</b> 71. 친구들과 어울려 흡연이나 음주를 하게 됨 72.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등 유해업소에 출입하게 됨 73. 비행하는 친구들과 함께 자주 어울려 다님	요인1 (비행행동) (71~73)	3문항	a= .774	a= .772	a= .755	a= .863
전체 (50문항)					a= .918	a= .898	a= .908	a= .963
통제 불가능 (22문항)					a= .831	a= .768	a= .794	a= .935
통제 가능 (28문항)					a= .894	a= .879	a= .888	a= .935